



네덜란드 덴 하그의 출근길. 자전거 행렬이 보도 한 쪽을 차지하고 있다. 자전거도로와는 달리 바로 옆 차도는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네덜란드 덴 하그의 2층 자전거주차장. 자세히 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오르내리기 편하게 계단 옆에 자전거길이 설치돼 있다.

“자전거 타세요” 정부가 앞장... 일상이 된 두바퀴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8>

유럽편 '도시와 자전거'



독일 간선도로의 자전거도로.

자동차 교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에서 자전거는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운동·여가 수단이 되고 있다. 자전거를 출·퇴근이나 쇼핑 등 일상에서 불편함 없도록 근본적인 정책 및 여건을 전환시켜야 하지만 이들 도시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만 눈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유통매장, 체육·문화시설을 주거와 근접하게 배치하고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보조수단으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성·편의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도시정책과 공간구조는 그대로 두고 지금과 같은 예산 투입 위주의 자전거 정책은 효과도 없는 시설 양산만 부채질할 뿐이다.

광주시의 자전거 도로는 겸용도로와 전용도로를 합쳐 124개 노선에 총 연장 473km에 이른다. 수치만으로는 유럽의 선진도시들보다 앞서 있다.

네덜란드의 덴 하그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250km다. 공공시설은 물론 호텔 등에서 9.5유로(한화 1만5000원 정도)를 주면 자전거를 하루 대여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의 넓이는 최소 150cm 이상으로 보도와 함께 설치돼 있으며, 곳곳에 자전거신호등과 주차장이 있다. 특이한 것은 자전거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다는 점이다. 짐이나 어린이를 앞세울 수 있는 자전거, 뒤에 짐칸이 실린 자전거 등이 스텝

도시심 어느 곳이나 전용 도로·주차시설·신호등 설치
대여제도 운영...자전거 이용 후 대중교통 연계 편리
기반시설 투자 위주 국내, 친 생활적 정책전환 필요

없이 거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전 7시50분 덴 하그는 자전거 출근하는 직장인의 자전거와 노면전차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상대적으로 버스와 택시는 적을 수밖에 없다. 자전거의 교통 수송분담률은 무려 30%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리옹의 공공자전거 정책은 세계 모든 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다. 광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의 공공자전거 정책도 리옹의 '모방'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리옹의 공공자전거는 무료가 아니다. 도시 내 353개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모두 3500대의 공공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 자전거를 타려면 1유로(한화 16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1유로지만 신용카드로 150유로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 주차장에 가서 체크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상당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공공소유인 자전거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정책으로, 자전거의 성능이나 디자인도 수준급이다. 교환학생이 파리에 왔다가 리옹을 들른 강하나(23·여)씨는 “구도심 내 자전거도로가 넓고 잘 구성돼 있어 자전거로만 관광이 가능하다”며 “반면 신도심은 차도 옆에 1m 정도 도로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장소에 따라 도로의 기능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도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420km의 자전거도로를 갖고 있으며, 짐칸이나 유모차가 달려 있는 자전거, 두 명이 굴리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종류가 다양했다. 또 자전거 택시도 볼 수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의 최대 중심지 하움트바헤(Hauptwache)에서 만난 이 자전거택시는 봄비는 인과 속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심 북쪽에서 볼 수 있는 자전거택시. 인파로 붐비는 중심가에서 자동차보다 신속한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프랑스 리옹에서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는 한국인 교환학생 강하나(23)씨 일행. 보증금 150유로를 내면 하루 1유로에 이용할 수 있다.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

땅끝의 희망을 먹고자란 해남특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깨끗한 토양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바다에서 정성들여 생산한 땅끝해남의 농산물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정겹고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해남산 특산품을 애용해 주세요.



쌀
깨끗한 환경에서 밤맛좋은 우수품종을 선정하여 계약재배로 생산된 전국 최고의 쌀 "한눈에 반한 쌀", "땅끝햇살"
해남군청 유통지원과 ☎080)536-1920
<http://rice.haenam.go.kr>



겨울배추
붉은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겨울을 견디어 낸 해남 겨울배추는 아삭아삭하고 배추자체의 물기가 적어 맛이 뛰어나다.
화원농협(e-맑은 김치) ☎061)534-4196



고구마
해남의 황토 흙에서 생산된 포근포근하고 달백한 밤고구마와 달삭지근한 맛이 일품인 호박고구마는 웰빙음식의 대표식품이다.
화산농협직판장 ☎061)532-6897
이래유통 ☎061)533-3407 <http://www.erfood.co.kr>
새순영농조합 ☎061)534-6988



김
청정땅끝바다에서 나는 김은 옛날 김맛을 살려 차별화된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해남수협 ☎061)534-4150
황산지수산물김연합회 ☎061)534-3839
금남식품 ☎061)533-3962